

01 교회소식

참 마음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열정!

국내외 전 성도의 관심 속에 개최된 '2014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영적인 새 힘과 은혜가 주어졌다.

02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

주님을 영접한 뒤, 하나님을 의지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03 기획특집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나는 과연 진리에 맞는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본다.

04 간증

주님 사랑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니 아프리카 영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윤인숙 사모 간증.

만민뉴스

제641호 2014년 7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4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23개국에서 참가, 믿음 분량 큰 폭 성장 예상



강사 이재록 목사의 교육(사진 1,3,4,6)과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성령충만기도회(사진 2), 이희진 목사의 말씀 시간(사진 5) 등 '2014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은 참석자들의 근본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014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이 '은 영 2'(히 10:22)라는 주제 아래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주강사로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대강당 다이아몬드홀을 비롯 11개의 소강당에는 전국 지역장, 조장, 구역장 및 국내의 주의 종과 일꾼, 성도들로 가득 찼다. 마산,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지교회를 비롯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케냐 등 23개국에서 참석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동시 통역됐다.

'은 영'(살전 5:23)이란 마음에 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아 범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를 의미한다. 이 마음을 이루기 위해 먼저 거쳐야 할 믿음의 반석과 영의 단계를 살펴봄으로 참석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저녁 교육에서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믿음의 반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9가지 비진리 즉 '험기, 감정, 미움·시기·질투, 거짓·속이는 마음, 판단, 변개함, 간음, 욕심·사심·탐심, 배신'에 대해 자세한 예화를 통해 짚어 주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 저녁에는 '왜 믿음의 반석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 믿음의 반석에 들어왔다 해도 더 이상 발전이 없이 정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영의 마음에 가까운데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와 영으로 들어왔으나 정체하고 있거나 더 이

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은 영'이라는 뜻을 향해 부단히 믿음의 정진을 이룰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해 온 참석자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치료의 축복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인간 경작 최고의 결실인 은 영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게 됐다.

하나님께서서는 2011년 전국 기관장 교육 '믿음의 분량', 2012년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영', 2013년 전국 기관장 교육 '은 영'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켜 주셔서 많은 주의 종, 일꾼, 성도가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다. 올해에는 '은 영 2' 말씀을 통해 믿음

을 한 차원 끌어 올려 주시며, 영의 마음을 이뤘다 할지라도 입술의 말과 행함,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차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이 밖에도 첫째 날 오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고, 둘째 날 오전 이희진 목사의 말씀 시간에는 참석자 전체가 한 마음이 돼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 드린 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셋째 날 오전에는 물놀이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신속히 수천 명이 믿음의 반석, 수백 명이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은 영의 열매로 나와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8)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

대로이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사망이 임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영생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있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범죄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도 결국 죄인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롬 5:1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의 한 행동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2.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를 이루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이며(요 16:9), 의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배신한다면 인륜을 저버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수 마귀를 따른다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과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계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실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없이 구원의 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으니 하늘 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의 법을 일깨워 주셨으니 계명을 지켜 행해야 의에 이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악을 버리며 행함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의 모양이 전혀 없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악을 버리며 행함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인 진리가 임해 생각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 행함이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 불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습니다. 이 마음이 요동해 결국 악한 행

동으로 나오지요. 즉 탐심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들이고 사기나 횡령, 도둑질 등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음 자체에 악이 없으면 생각을 통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죄의 쓴 뿌리를 빼내버리면 생각을 통해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도를 다 지켜 행해 표본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에 대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이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축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참 뜻을 알고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규례란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으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 즉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참된 생명을 얻어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지 못하므로 분쟁이 생기고 원수를 맺으며 질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고(출 15:26) 만사형통한 삶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한 복을 받게 되지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로 인해 축복된 삶을 영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의의 위해 싸우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의로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생명으로 이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범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에서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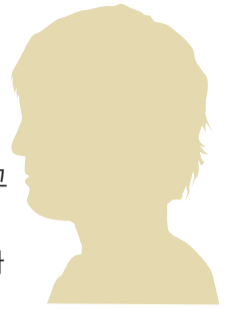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의 작용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뇌에 기억 장치를 주셨다. 그리고 머릿속의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지식,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을 통틀어 '혼'이라고 한다. 이 '혼'은 어떤 작용을 할까?

'혼'은 우리 기억 장치 안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진다. 또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발을 이루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의 작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



01

상대를 이해하거나 포용하기 어렵다

옷 입는 것만 보아도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똑같은 영화를 보아도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자신과 성격이나 취미 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연 중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B는 감정을 잘 표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앞뒤를 살펴 결정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때 A편에서는 B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가, B편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A를 대하기가 어렵고 자주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거나 포용하기 어렵다.

이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게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며 맞춰 줄 때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02

자기 나름대로 단정짓고 판단한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잘할 것이라고 여긴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단정짓는다. 사람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느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단정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동문서답도 판단에서 나온다. 자주 지적하는 사람에게 "몇 시

에 출근했어요?"라고 물으면 기분 상해하면서 "지각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본다. 몇 시에 출근했다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지각한 줄로 생각하고 묻는 것으로 판단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안 봐도 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정짓고 판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03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정죄한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정죄하는 것을 본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딴 생각에 잠겨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기도받고 불치병을 치료 받았다."고 간증하면 "기도만 받고 어떻게 병이 치료되나? 병원에서 오진했거나 호전됐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 하고 판단하거나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판단 정죄하기도 한다.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본다거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다고 하면 "이단이다. 신비주의다."라고 말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온 신앙의 틀 속에서 판단 정죄하는 것이다.

04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잘못 전달한다

상대에게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가미되어 말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전하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의 강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상대를 부를 때도 친근하게 "누구야~" 하는 것과 성난 목소리로 "누구야!" 하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남의 말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어 전한다면 원래 의미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래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심할 때에는 전혀 엉뚱한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게 아닐까?" 하는 말이 "그렇더라."로 바뀌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예정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전달되는 것이다. 마음이 진실하면 어떤 것도 왜곡해 말을 전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대충 넘어가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마음이 없을 수록 보다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

05

감정(感情)이 있어 언짢아하며 불평한다

윗사람이 실수를 지적하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없어요?" 책망했다면 어떤 사람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중심에서 답한다. 하지만 평소 불만이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야 하나?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하며 감정이 발동한다. 또는 상사가 권면할 때 어떤 사람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상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데 그렇게 잘 알면 직접 하지.' 하고 언짢아하며 불평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일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아도 비진리의 느낌을 갖지 않으면 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예 비진리를 보거나 듣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비진리를 접했다 해도 선으로 생각하며 느낀다면 선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2014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 07.06~07.12

0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6-10 ■ 지옥 15-17
- 요한일서 강해 42
- 창세기 강해 111 ■ 예언 2
- 십자가의 도 16-20 ■ 축복 6
- 믿음의 분량 14-18 ■ 생명의 씨 4
- 감사 (2013 맥추감사절)
- 우리 삶의 등불 15-17

02 GCN TV설교

- 악한생각 / 성결과 충성 (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1 (이미경 목사)
- 복있는 사람 3 / 생명수 16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1-2 / 말씀, 기도 (이화선 목사)
- MIS강의 12 / 충성된 사자 (영구영 목사)
- 보석같은 마음 / 양선 (김수정 목사)
- 세가지 시험 (김승신 전도사)

03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8,9,1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2
- 옛날 옛적에 6 ■ 찬양드려요 3-4
- 모두 드려요 9-1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8
- 흥겨운 소리 6 ■ 향기 3,21 ■ English 3-4
- 아름다운 예배 10 ■ 뷰티풀라이프 3
- 만민지킴이 4-5 ■ 플로리스트 2-4

04 해외성회 및 교육

- 뉴욕연합대성회 1
- 회상 11
- 2013 기관장 교육 8-9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990년 12월, 남편 정명호 목사님은 지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 구역공과 모임 『옛새 동안의 만나』 책자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비밀한 영계의 말씀에 감탄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케냐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선교

1991년 7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호서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남편 정명호 목사님은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강한 주관을 받아 케냐 나이로비대학의 교환 교수로 자원했습니다.

저는 목자와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못내 섭섭했지만 1994년 9월 정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 케냐로 간 이듬해 3월 출국했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언어와 문화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며 적응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요.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데다 예배 시간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서울에서 보내 주는 예배 실황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예배를 드렸지요. 1996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그해 10월 정명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 주신 성경 말씀을 전했지요.

그들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며,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록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케냐의 각 도시와 아프리카 각 나라의 도시에서 세미나와 집회가 계속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선교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요. 당시에는 제가 동행하



여선교회 일꾼들과 함께한
유인숙 사모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며 사진 촬영하고 식사 준비와 빨래 등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해 자동차가 고장나는 경우도 많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차멀미도 심해 장시간 덜컥거리는 차를 타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한 번은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맡겼다가 수백 Km를 다시 가서 찾아오던 중 길에서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실수로 부품을 빼놓아 그것을 구하는 데만 3일이 걸렸지요.

경비를 절약하다 보니 호텔의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가 벌레가 많아 곤잘 물리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지요.

정명호 목사님이 자주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선교센터의 주의 종과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당회장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정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돼 순종하는 주의 종, 일꾼들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간다 연합대성회 이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개척과 부흥

2000년 7월,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는 아프리카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성회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병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눈을 뜨고,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그해 11월, 나이로비만민교회가 개척됐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매달 개최하는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많은 성도가 응답받고 축복받았지요.

어느 주일에는 점심을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이 오셔서 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다. ‘어떻게 잘 분배를 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슬뚜경

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 쌀은 밥을 지으면 밥알이 작는데 평소보다 3배 정도 크기로 불어난 밥알들이 큰 솥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심하게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을 느꼈지요. 이제는 영혼을 관리하며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업혀 왔습니다.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정상으로 돌아와 걸어서 귀가했지요. 아토피로 얼굴이 보기 흉한 여 성도도 기도받은 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 종과 형제 여럿이 귀신들려 소동을 피우는 한 자매를 제어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자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왔지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 제가 기도해 주는 손에서 너무 강렬한 빛이 나와 두려워서 눈을 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에서 발해진 빛이었지요.

아프리카 55개국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니 축복

평소 소화불량 증세가 있었던 저는 2011년 초 증상이 심해져 알아보니 위궤양이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더 많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와서 “지금 운동장에서 이미 경기가 시작됐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어야 하는 입장인데 관람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속히 변화돼 아프리카 선교에 큰 힘이 되어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 목사님을 도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변화되길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영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이뤄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니 점점 몸도 강건해졌고, 2014년 3월 31일에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명호 목사님과 하나 돼 55개국 아프리카 복음화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과 일꾼들을 도와 아프리카 선교에 큰 힘이 되고자 기도하며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1070-3601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73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6650-2046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전원맨션 2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로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489-9857, 010-71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방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